

전북도, 생태체험 1번지 부상

작년 전문가·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추진 완주 '비밀의 숲' 등 3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받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생태자원의 보고 전북도가 생태체험 1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도내 24개의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북도는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별로 약 6개월여 동안 생태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연계해, 지역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을 2개소씩 총 24개를 개발하여 아이, 어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여행지에서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직접 자연 속에서 떨어진

낙엽, 나무열매 하나하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생태체험의 색다른 매력에 큰 호응을 보였다.

에코티어링과 사운드스케이프 체험 등 그동안 흔히 접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과 지역주민의 맛깔나는 해설이 더해져, 보다 재미있게 생태관광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완주 '비밀의 숲, 싱그림', '푸드마일리지, 콩이 두부가 되까지', 장수 '뽕봉샘 금강 찻물길' 3개의 생태 체험프로그램은 전문컨설팅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프로그램 본격 운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프

로그램, 지도자, 교육활동 환경, 활동 기록 관리 등 4개 영역, 10개 인증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우선 배정과 우수 환경교재 및 환경교구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프로그램 보안을 통해 나머지 시·군까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 프로그램은 하반기부터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수학여행단 등 유치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이 밖에도,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밥상 개발 등을 보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기존 관광지와 생태관광지를 연계, 전북 투어패스 상품 확대 등을 통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지역주민(에코매니저)이 전문적인 해설과 지역환경에 특화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신규양성보다는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태관광지 방문객 대부분은 자연에서 머무르며 충분히 즐기는 생태관광의 힐링 체험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전북을 생태체험 1번지로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지훈련의 메카 '전북'

도체육회, 책자 제작·배포

소년체전 대비 전북 방문 예상 지역별 주요 관광지 등 알리기로 훈련장·먹거리 등 정보 담겨



전북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전북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전북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에도 전지훈련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익산 등 도내 일원에 열렸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경기장과 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만큼 이른바 '깨끗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도내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역별 주요 관광지 및 맛집 등도 알리기로 했다.

도 체육회는 전북의 훈련장(경기장)과 관광명소, 먹거리, 숙박업소 등의 정보가 담긴 전지 훈련 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알아보기 쉽게 도내 14개 시군별로 정리돼 있으며 하계·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원 기자

아울러 육상과 수영, 축구, 유도, 농구, 테니스, 배구, 펜싱, 배드민턴, 스키, 요트, 하키, 카누 등 각종 종목별 훈련장소도 기재 돼 있다.

전북체육회 최영원 사무처장은 "전북이 전지훈련의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9개 종목(411개팀)의 5869명(연인원 7만5096명)의 선수가 전북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약 90억원의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원 기자

전북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 계도기간 운영

전북도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전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매장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도는 변경되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횡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진성 기자



건설인 신년인사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전북도, 행복콜버스 확대 시행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 전주 등서 20대 증차키로

전북도가 행복콜버스(DRT)를 확대 시행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크게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총사업비 200억원을 2019년도에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행복콜버스(DRT)는 버스 및 택시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대중교통운영체제로 농산어촌지역 맞춤형 교통복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국내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주로 도비를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시내·농어촌버스의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버스 이용수요 감소, 버스회사의 만성적자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시·군의 재정지원 부담 가중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버스운영체계

의 체질개선은 지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시내·농어촌버스의 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준공영제 도입이 거론되면서 대중교통 불편 및 소외지역에 적합한 행복콜버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부터 행복콜버스 도입을 준비한 전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최다 23대의 행복콜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주, 완주, 무주, 장수 등에서 약 20대를 추가로 증차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농관원, 설 명절 대비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차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었으나, 올해에는 전주, 완주, 무주, 장수 등에서 약 20대를 추가로 증차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

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 통관판매 모니터링을 강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속기간에 생산자·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 대한 지도, 홍보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태 기자

